



스탠드 마무리 공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암에서 열리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을 나흘 앞둔 18일 경기장내 가설 스탠드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F1 이모저모

“경주차 가까이서 보세요” 일반인에 ‘피트’ 개방 9번 대회중 4번 적중 우승자 맞히기 달인 탄생

○실제 레이스를 막 마치고 돌아온 100억 원대 포뮬러원(F1) 경주차를 1~2m 근접거리에서 볼 기회를 영암 F1서킷에서 잡을 수 있다.

오는 23일 예선전이 끝난 직후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여동안 피트(Pit)를 제한적이지만 일부 일반관람객에게 개방한다.

F1머신 정비동인 피트는 24대의 F1머신이 레이스 전 준비를 위해 대기하거나 레이스 도중 타이어 교체 등을 위한 세팅 작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평소에는 출입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다른 대회에서는 1인당 입장권이 500만원을 넘는 ‘패독클럽’ VIP관람객들을 위해서만 대회기간 하루에 1차례씩 ‘피트 레인 워크(Pit lane walk)’ 행사를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이번 F1 코리아그랑프리에서는 한국 첫 대회를 기념해 메인 그랜드스탠드의 전일 관람권(22~24일)을 구입한 관람객들도 23일 예선전 후 피트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의전차량 벤츠 20대 제공 협약

○F1대회조직위원회와 F1대회운영법인 카보(KAVO)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딜러인 더글라스 효성과 벤츠 차량을 경기진행 공식 FIA(국제자동차연맹) 코스 카(Course car) 및 F1 드라이버들의 의전차량으로 운행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총 20대의 차량을 제공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FIA 코스 카는 F1 경기가 열리기 전 트랙을 달려 트랙의 상태가 경기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FIA 코스 카는 ‘메르세데스 벤츠 CLS350 AMG Limited’ 차량으로 ‘F1의 황제’ 미하엘 슈마허 등 드라이

버와 FIA의 VIP 의전 차량으로도 제공된다. 의전에 참가한 차량 20대는 대회 종료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해당 차량의 구매 고객에게는 카보의 F1대회 의전차량 인증서가 제공된다.

F1 드라이버 사인 받으세요

○지구촌에 24명만 존재하는 F1드라이버를 직접 만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사인회는 예선전이 열리는 23일 경주를 마친 후 오후 4시30분경 영암서킷의 메인 그랜드스탠드 뒤편 특별무대에서 진행된다.

사인회에 나서는 드라이버가 24명 모두가 될지 지명도가 높거나 인기선수 몇몇만이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서킷 안 행사 부속한 한국대회로서는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20일 오전 11시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디자인 미술관에서 2008년 종합우승을 차지했던 루이스 해밀턴(영국)이 먼저 한국 팬을 만나 사인회를 갖는다. 맥라렌 소속인 해밀턴은 2008년 23세의 나이에 F1 종합 우승을 차지해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던 선수다.

○F1대회 우승자를 4번이나 알아맞힌 달인이 탄생했다.

F1조직위는 지난 6월부터 F1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우승자 맞히기 이벤트에서 이순행(울산), 이세진(서울)씨가 총 9번의 대회 가운데 4번씩 우승자를 맞췄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첨에서 달인인 선정된 이세진씨에게는 기아 포르테 쿵 승용차(1500만원 상당)가, 이순행씨에게는 브리지스톤 타이어 1세트가 각각 부상으로 주어진다.

/영암F1 특별취재팀=정필수기자 bungy@

F1 알고 보면 재미 두배

F1 머신

대당 100억원...첨단 자동차 기술 복합체

F1의 주인공은 역시 ‘머신’으로 불리는 차량이다.

몸값이 100억원에 달하는 F1 머신은 최첨단 자동차 기술의 복합체다. 배기량은 중형차 수준인 2400cc에 불과하지만 750~780마력의 힘을 자랑한다. 동급 승용차의 150마력에 비하면 엄청난 파워이다.

직선 주로는 비행기 이륙시 속도와 맞먹는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2.4초면 충분하다.

머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다. 엔진 무게는 80~100kg에 불과하지만 엔진 회전수는 최대 1만8000rpm으로 일반 승용차의 3배에 달한다. 1분에 피스톤 운동을 1만8000번이나 한다는 의미로 고막을 찢는 굉음의 근원지가 바로 엔진 회전수에 있다.

머신에서는 광고판 역할도 특출하고 있다. 머신 한대에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자리는 9개인데 이곳에 붙는 광고료를 모두 합하면 2000억원이나 된다.

/영암F1 특별취재팀=정필수기자 bungy@

달아오른 열기...축제는 이미 시작

목포 도심 내일부터 4일간 대규모 카퍼레이드 콘서트·항공기 에어쇼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지구상 최고의 스피드 축제인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주장 주변은 벌써 F1 대회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다.

대회 개최를 앞두고 경주장 일대 목포, 남악산도시, 영암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전담을 찾는 20만명 이상이 스피드 축제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F1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00명이 넘는 국제자동차연맹(FIA) 및 F1팀 관계자들이 이미 입국, 목포 시내 중심가는

외국인들로 북적대고 있으며 대회기간 중에도 7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F1 관계자 및 관람객들의 숙소가 집중된 목포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 대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우선, 개막을 이틀 앞둔 20일부터 4일간 슈퍼카 퍼레이드도 목포 도심을 자동차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퍼레이드에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 페라리, 시보레 디럭스, 피아트 500

등이 등장하며 24일까지 목포 시내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또 인기 레이싱걸들과 포토타임, 레이싱카의 고난도 드리프트 시범, 할리데이비슨 퍼포먼스, 카트레이싱 등이 이 기간 동안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목포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젊음의 열정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대규모 ‘F1 대회 성공기원 특집 콘서트’도 준비된다.

21일에는 부에나비엔(2NE1), 트랜스픽션, 채동하 등이 출연하며 22일부터 24일까지 나르샤, 럼블피쉬, VOS, 원투, 가비엔지, 시크릿, 슈퍼스타, DJ DOC, 김태우 등이 대거 출연하는 콘서트가 잇따라 열린다.

이 기간에는 또 흥대 클럽의 유명 DJ가 진행하는 ‘레이브 파티’가 댄스스포츠, 락 밴드, 비보이 등의 공연을 중심으로 새벽 4시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젊은이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영암 서킷에서도 23~24일 메인 그랜드스탠드 상공에서 대회 시작 전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항공기 T-50 8대의 고난도 에어쇼와 CH-47 헬기의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취태대의 연주를 시작으로 여가캠핑, 강강수월래, 태권도 및 검무 등을 비롯, 김중국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을 잇따라 열고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평화공원 광장 및 해변도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체험행사가 펼쳐진다. RC카 체험, 레이싱카 및 클래식카, 슈퍼카 전시회 등이 열리는가 하면, 국제 요트대회가 열리고 요트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가 앞으로 3일 뒤엔 열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F1 특별취재팀=김지을기자 dok2000@

천일염 선물 받고 거북배도 타 보세요 전남개발공사 다양한 지원책 마련

‘귀하게 끼고 경기 관람한 뒤 천일염을 선물 받고 거북배도 타보세요’

전남개발공사가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개발공사는 대회 기간 중인 22일부터 사흘간 영암 서킷 그랜드스탠드 주변에서 경주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귀하게 5000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F1 대회의 경우 트랙 가까이 있으면 고막

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엔진 사운드로 인해 귀마개는 필수다. 특히 서킷의 스타트 라인에서 2400cc의 배기량으로 무려 750마력을 내는 12개팀 F1 머신 24대가 동시에 엔진 사운드를 울리면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굉음을 감수해야 한다. 또 대회 기간 중 토산 천일염(35g·사진)도 2500개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개발공사는 아울러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24일 경기 뒤 관람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목포

3할대 선착장부터 목포 북항까지 4차례에 걸쳐 ‘울퉁물 거북배’를 운항할 계획이다. 진도 지역에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며 인기를 끌고 있는 거북배를 활용, 교통편으로 제공하면서 지역 관광자원을 알린다는 복안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F1 대회를 위해 전남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F1 특별취재팀=김지을기자 dok2000@



본교캠퍼스 전경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름심! Th.M.(신학석사)과정 개설

1년내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완성해서 12개월에 학위 완성함. 최고의 교수진 선교, 치유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학비 저렴 타 대학 학비의 1/2 내지 1/3. 진로 보장 1) 이 과정에 입학자는 100% T/A(교육조교) 자격증을 수여하고 최대 6회까지 지도교수의 전공강의 1/2을 현장강의 함. 2) 우수졸업생 해외 Ph.D. 과정 유학을 보장하고 졸업생 전원 학부강의를 맡을 수 있는 기회부여. 3) 타 대학 출강 적극 추천 4) 수업시간:2주1회(학생편에서 시간이 있을 때 수업시간 자유)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입학 문의 학장 직접상담 010-7413-1215, 061) 381-0000, 1365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교수진 NO 교수명 과목 경력 및 현직 1 이환수(이사장) 철학 미국 일리노이대학졸업, 5,18북미주대표, TX한외전장&상공의회 회장, 한미인민연구소장, 광주바이블칼리지 이사장, 세린사회교육원 대표 2 최정만 학장 신학/선교학 미국미시건대학(학사), 영국브리스톨대학(석사), 미국호튼크리스천대학(석사), 미국콜롬비아대학(Ph.D), 미국올리버리언(연구원), 미국폴리텍대학원(연구원), 충신대학교 신교대학원(교수), JDI대표 3 채영애 실천신학 미국미시건대학(학사), 영국브리스톨대학(석사), 미국호튼크리스천대학(석사), 미국콜롬비아대학(Ph.D), 미국올리버리언(연구원), 미국폴리텍대학원(연구원), 충신대학교 신교대학원(교수), JDI대표 4 윤영혁 조직/신학 충신대학(M.Div.), 미SouthWestern대학(Th.M), Regent대학 조직신학(Th.D) 전남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M.Div.), 전남대학교장, 이사라엘브리리대학 고대근동어(Ph.D), 광신대학교구약학교수,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M.Div), 화남연합신학대학(박사과정), 독일브레멘신학대학원, 벨기에브뤼셀신학대학원, (현)광주순교교회 담임 7 조태익(교목부장)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M.Div.), (현)담양유교회 담임 8 임영 선교/영어 조선대학교(영문학 학사, 석사) 선교총회(M.Div), 조선대, 동신대, 호신대 출강,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세린사회교육원부설 국제어학원장 9 김응별 실천신학 한국서신대학교, 충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국ITTS 목회학(박사과정), 한국사회교육원 교수,(현)세계복음사연구원장, 한국사회교육원 중앙COT강력지원본부 원장, (현)남양주 푸른초등학교 담임목사 10 고경태 조직신학 충신대신대원(M.Div.), 충신대학교(조직신학 Ph.D)위촉, (현)주님의교회 담임 11 신동구 실천신학 신대대학원(M.Div.), Th.M 아세아연합신학대학(Th.M), 예루살렘성서대학(Th.D), 백석대학교(Th.D), (현)주님의교회 담임 12 김봉진 윤리학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대원(M.Div.), 호남신대(Th.M), 장신대학원(Th.D)(현)담양개동교회 담임 13 손순용 사회복지학 동신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전남도립대학교수 14 정현필(연구처장) 창조과학 한국항공대학교항공공학박사, 조선이공대학교수, 창조과학회이사, 전남대학교출,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원(Th.D.), (현)월송교회 담임 15 강대영 실천신학 개신대학원(M.Div.), (현)영광열산교회 담임 16 최사채 실천신학 개신대학원(M.Div.), (현)영광열산교회 담임 17 김원식 교회음악 전남대학교음악학과, 미국위싱턴대학교출, (현)호신대학교장사 18 이길수 부흥신학 감리교신학대학원출입, 예수전도단(YWAM)DTS훈련장사, 새물결선교회부회장, 강사, (현)광주예향교회 담임 19 진장환 기독교 교육 개신(M.Div.), 미 I.T.S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세린사회교육원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 1.국내선교회 중 최고의 시설, 최최의 교육환경 -3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체물(예배당),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2.호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선교, 치유, 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3.최 단기 학위과정 완성-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4.대 교단 총회인준신학교- 졸업생 전원 100% 목사인수, 선교사파출(책임진로지도) 5.Venture Spirit -전문성과 인사 그리고 Venture Spirit 을 가진 전문(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졸업생들을 심어준다. 6.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어촌목회, 해외 선교별 중공선교, 몽골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선교, 베트남선교, 캄보디아선교, 태국선교, 인도선교, 파키스탄선교, 중동선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 실시. 7.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전교생 100%에게 장학 혜택을 주어지고 학생 본인 부담은 최소화 8.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해외 교회와 자매교회를 맺고 해외 자매교회에 단기 인턴십을 보낸다. (단기해외 현장 학습 및 실습) 9.해외 대학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매년 심포지엄 포럼, 선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10.복수 학위제 실시 -모든 학위 과정의 절반은 국내 GBC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자매 학교에서 이수하고 학위는 양국에서 각각 준다. (한 과정 두개의 학위)

드거원 영성과 나카로론 지성의 조화 평생교육의 1번지 광주바이블칼리지 세린사회교육원 Gwangju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후 원 : Chemolee Lab, Corp.(U.S.A) http://www.gjbc.kr TEL, 061) 381-1365/000 FAX, 061) 381-1367